LH 한국토지주택공사 | 보도자료 | 희망을 위한 LH의 약속, Life with Hope

배포 2026. 10. 21.(수) 15:30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모듈러주택 활성화로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

- 2030년까지 모듈러주택 연 3천호 이상, 총 1.6만호 발주… '규모의 경제' 실현 선도
- 고양창릉, 남양주왕숙2, 포천송우 발주로 연내 2.1천호 달성…목표치 상회
- 21일 모듈러 제조사, 가전사, 전문가 등과 간담회 개최…공급 확대 및 기술고도화 논의

□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주택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유도하고, 오는 2030년까지 1만 6천 호 발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○ LH는 2026년 모듈러주택 연간 발주 물량을 당초 목표치(2,000호)를 상회하는 2천 1백호 수준을 발주해 시장의 공급 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다.

○ 이달에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A3블록(668호)과 남양주왕숙2 A10블록(555호)을 대상으로 모듈러공법을 적용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공모를 시행하며, 오는 12월에는 포천송우2 A1블록(916호)을 대상으로 단지 전체(100%)에 모듈러공법을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추가 발주를 시행할 방침이다.

○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2027~30년까지 연 3천호 이상, 총 1.4만 호의 모듈러주택을 단계적으로 발주할 계획이다. 이는 정부가 '8.13 주택 신속공급 방안' 등을 통해 제시한 2030년 공공 모듈러주택 공급 목표(2만호)의 70%에 달하는 물량으로, LH가 안정적인 연속 발주를 통해 모듈러 시장의 '규모의 경제'를 앞장서 실현할 방침이다.

[LH 중장기(2027~2030) 모듈러주택 발주계획]

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	합계
3,000호	3,000호	3,000호	5,000호	**14,000호**

모듈러주택 활성화 위해 간담회 개최…민·관 상생 생태계 강화

□ LH는 21일(수)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모듈러 제조사, 가전사,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「모듈러주택 활성화 간담회」를 개최했다.

○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(화) 국무총리의 민간재개발 현장 방문 당시 논의된 '공업화 건축을 통한 주택 대량공급 및 공사비 저감 방안'과 모듈러 시범 사업 확대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, 모듈러 공공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과 민관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.

○ 간담회는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 주재로, 국내 모듈러 산업을 선도하는 제조사와 함께 삼성전자, LG전자 등 가전기업,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모듈러 공급 확대 및 기술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.

□ 또한 간담회에서는 삼성전자 및 LG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모듈러와 AI 가전을 결합한「AI 모듈러 홈」구현 방안이 다뤄져 주목을 받았다.

○ 공장에서 제작하는 모듈러의 특성을 극대화해, 설계단계부터 AI 가전·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통합하여 입주민에게 최적화된 생활 케어 및 에너지 절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, 주거성능 향상을 통해 차세대 스마트 주거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간담회에 참석한 모듈러업계 관계자는 "연속적이고 대규모 중장기 발주 계획에 기대가 높다"며 "안정적인 물량 확대에 발맞춰 생산라인 확충과 기술 고도화에 적극 협력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□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은 "모듈러주택은 획기적인 공기 단축과 고품질 시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핵심 대안"이라며 "연내 2.1천호, '30년까지 발주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, 모듈러주택을 스마트 AI 주거 공간으로 진화시켜 미래 주택을 선도해 나가겠다"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주거혁신처	책임자	팀 장	노태극	(055-922-4043)
		담당자	차 장	노준오	(055-922-4066)